PAKISTAN GLOBAL INSTITUTE

PGI Newsletter

제39호 2026년 10월



(사) 한-서 아시아 교육연대 이사장 인사말



이사장 **정세진** 교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맞아 그동안 PGI를 위해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후원이 있었기에 PGI가 한 걸음씩 성장하며 어느덧 4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한국을 방문한 PGI 학생들을 기쁘게 맞이하며 여러 기관과 대학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학생들과 가까이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가능성과 열정을 보았고, 그 안에서 파키스탄의 밝은 미래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PGI에는 분명한 하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단지 좋은 대학, 실력 있는 대학을 넘어 "사랑하는 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PGI 안에 더욱 분명해지고, 교육과 섬김의 모든 자리에서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헨리 나우웬의 가르침처럼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과 조건을 넘어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캐나다와 미국 등에서 새로운 교수진과 스태프가 합류했고, 앞으로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지역에서도 새로운 동역자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또한 페르시아권과 중동 지역에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PGI는 점점 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캠퍼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PGI가 더욱 사랑하는 대학, 섬기는 대학, 변혁의 일꾼을 보내는 대학의 소명과 정체성을 열정적으로 부여잡기를 소망합니다.
추수의 계절, 지금까지 PGI와 함께해 주신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PGI를 통해 더욱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한-서아시아 교육 연대
Korea-West Asia Education Alliance

PGI 현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곳 파키스탄에도 이제 제법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길고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며 PGI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웃고 배우고, 또 새로운 꿈을 품었던 지난 여름의 소식을 설레는 마음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컴퓨터학과 훈자 졸업여행



지난 6월 5일, 기말고사를 마친 학생들은 석 달간의 긴 여름방학을 맞아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컴퓨터학과 학생들은 특별한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출발 예정 시간은 밤 10시였지만 여행사 버스가 밤 1시가 넘어서야 도착해, 결국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쉽지 않은 여행이었지만 학생들의 기대와 설렘은 그만큼 컸습니다.

파키스탄 북쪽에 있는 산골마을 훈자(Hunza)는 이곳 현지인들도 평생 한 번 방문하기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 컴퓨터과 교수님께서 오래전부터 마음을 품고 준비해 주신 덕분에 이번 여행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이 험하고 예상치 못하게 길에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많았지만, 학생들은 장엄한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훈자 마을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국경지대인 쿤자랍 패스(Khunjerab Pass)까지 방문하며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함께 공부해 온 학생들과 교수님이 졸업을 앞두고 더 깊은 정을 나누고,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훈자의 풍경만큼이나 학생들의 마음속에도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졸업여행이 되었습니다.




영어 캠프

다니엘 올슨 교수의 모교인 캐나다 Briercrest College에서 교수님 두 분과 인턴 학생 네 명이 PGI를 방문하여 영어 캠프를 함께 섬겨 주었습니다. 지난 학기 ESL 수업을 통해 영어 공부에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은 학생들 가운데 45명이 영어캠프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한 달간의 캠프를 통해 영어가 한층 더 친숙해졌고, 특히 말하기와 듣기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교실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수업뿐만 아니라 게임과 스포츠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이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여 주었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며 자연스럽게 새로운 단어를 익히고, 영어를 즐겁게 배우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캠프 기간에는 함께 이슬라마바드와 머리(Murree) 지역을 탐방하며 교실 밖에서도 영어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0도를 넘는 파키스탄의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진행된 영어캠프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서로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할 만큼 깊은 정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벌써부터 다음 방학 영어캠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어캠프가 단순히 영어 실력을 높이는 시간을 넘어,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즐거움을 발견하고 더 큰 꿈을 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비전트립





지난 7월 5일부터 19일까지, PGI 학생 21명과 현지 조교 1명으로 구성된 비전트립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대학과 기업을 방문하는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한 곳도 빠짐없이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발전된 시설과 깨끗한 환경을 직접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동 거리가 길어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았지만, 파키스탄의 복잡한 교통 상황과는 다른 질서 있는 교통문화, 매연이 적은 도로, 끝없이 이어지는 높은 빌딩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한강의 모습도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언젠가 파키스탄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대학 캠퍼스를 둘러보면서 학생들은 PGI의 현재 모습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PGI 캠퍼스가 아직은 작지만, 앞으로 더 아름답고 훌륭한 교육환경을 갖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새로운 꿈도 품게 되었습니다.

비전트립에는 진지한 배움뿐 아니라 즐거운 추억도 가득했습니다. 다이소에서 마음껏 쇼핑하며 행복해하던 모습, 평생 처음 마주한 바다에서 흐린 날씨와 차가운 바닷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영을 즐기던 모습도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국 비전트립을 통해 학생들의 시야가 넓어졌고, 자신의 미래를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앞으로 이들의 삶과 진로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비전트립이 가능하도록 기도와 사랑, 섬김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름방학 인턴십 소식





▲ 기아자동차

이번 여름방학 동안 PGI 학생들은 카라치 기아자동차, 굿네이버스, KOICA 파키스탄 사무실을 비롯하여 파키스탄의 여러 유수한 컴퓨터 관련 기업과 기관에서 인턴십을 경험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실제 현장에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무에 적용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여러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PGI 학생들이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영어와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좋은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몇몇 기관에서는 학생들의 태도와 역량을 높이 평가하여 향후 취업 기회를 연계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오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것을 넘어 실제 사회와 직장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 동안 PGI의 모든 교직원들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가르치고 섬겨 왔습니다. 아직은 작은 시작이지만, 그 수고와 헌신의 열매가 이제 조금씩 맺히고 있는 것 같아 큰 감사와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PGI 학생들이 어디에서든 정직함과 실력, 그리고 섬김의 태도로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 KOICA



▲ 굿네이버스

한국 교직원 AI 세미나

지난 8월 4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세미나실에서 방학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PGI 교직원들을 위한 AI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AI 혁신의 물결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대학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양대학교 이창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장현규 교수, 숭실대학교 김기원 교수께서 강사로 수고

해 주셨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AI의 흐름을 이해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해야 하는지, 또한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AI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고 고민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대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고, PGI의 교육 현장에 AI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었던 귀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PGI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해 한-서아시아교육연대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어 이사님들과 함께 식사하며 따뜻한 교제와 소통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PGI 교직원들이 새로운 교육의 변화에 함께 준비하고, 서로의 비전과 마음을 다시 나누며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세워 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입생 이야기

지난 8월 28일, 2026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입학식이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새로운 꿈과 기대를 품고 PGI에 입학한 학생들을 환영하며, 대학생활의 첫걸음을 함께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부터 PGI는 신입생들이 대학 교육에 보다 잘 적응하고 기초학력을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브릿지 학기(Bridge Semester)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과정에서 영어와 수학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현재 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반을 편성하여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현재 수준에 맞는 수업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대학 강의를 원활하게 따라갈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추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기초가 더욱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올해부터 ESL 과정을 먼저 이수한 후 정규과정에 입학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단순히 학생을 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학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PGI의 중요한 교육 방향입니다.

브릿지 학기 동안 학생들은 영어와 수학을 집중적으로 배우며 대학생활에 필요한 기초역량을 차근차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배움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PGI에 찾아오고 있어 감사하며, 이들이 앞으로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미래를 힘있게 준비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층 강의실 증축 공사 중

PGI 캠퍼스의 1, 2, 3층은 이제 대부분의 공간이 강의실과 연구실, 행정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늘어나고 교수 연구실과 새로운 교육공간에 대한 필요가 커지면서, 오랫동안 기다려 온 숙원사업이었던 4층 증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현장에서는 학교 담장 밖에서 연결된 도르래를 이용해 벽돌과 각종 자재를 4층까지 옮기고 있으며, 많은 인부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4층의 모습을 바라보며 PGI 캠퍼스가 또 한 단계 성장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4층에는 강의실 10개, 간호학 실험실 2개, 극장식 강의실 1개, 학과 사무실과 교수 연구실 15개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완공 후에는 앞으로 개설될 간호학과와 교육학과 및 교수들의 연구공간으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조촐하게 시작했던 PGI 캠퍼스가 해마다 조금씩 성장하며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발걸음으로 캠퍼스가 더욱 활기를 띠는 가운데, 이번 4층 증축 공사는 PGI의 다음 성장을 준비하는 매우 뜻깊은 발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완성될 공간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꿈꾸며, 교수들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교육·문화·산업을 경험한 한국 비전 트립

suleman | 컴퓨터과 4학년

저는 2026년 여름, 서울·대구·포항을 방문하는 **한국 비전 트립(Korea Vision Trip)**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7개의 대학 및 연구기관, 4개의 기업과 산업 현장, 학교, 박물관과 문화·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며 한국의 교육과 기술, 산업, 문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양대학교와 숭실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를 방문하며 한국 대학의 다양한 교육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컴퓨터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숭실대학교의 컴퓨터과학교육과 AI 융합 강의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경북대학교와 DGIST를 통해서는 대규모 종합대학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포항의 한동대학교에서는 국제적인 교육환경과 학생들과의 교류를 경험하며 대학 교육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산업 현장 방문도 특별했습니다. LG 사이언스파크에서는 AI, 배터리, 로봇, 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연구와 산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POSCO에서는 실제 제철소의 거대한 생산시설과 자동화 시스템을 직접 보며 한국의 산업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애터미와 Green Power를 방문하며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과 글로벌 비즈니스, 친환경 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면서는 한국의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그 바탕이 된 오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와 박물관, 기업, 대학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교육·기술·산업·문화가 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한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배움은 책이나 자료를 통해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한국의 교육과 기술, 산업 현장을 직접 보고 제 경험과 비교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소중했습니다.
이번 한국 비전 트립은 저의 시야를 넓혀 주었고, 앞으로 제가 어떤 분야에서 공부하고 성장해 나갈 것인지 생각하게 해 준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코이카에서 특별한 여름

eman | 경영과 4학년



이후 7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는 이슬라마바드의 KOICA 파키스탄 사무소 프로그램 부서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연료 사용 내역과 재고 관리, 노트북 점검, 15개 KOICA 프로젝트 요약문 작성, 장학금 관련 문의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직원 스터디 시간에는 '파키스탄 문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서로의 문화와 생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6 KOICA 장학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지원하며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하고 전문적인 KOICA 팀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업무를 정해진 시간 안에 완성하는 방법,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전문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신 아미마 자밀 님을 비롯한 모든 팀원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격려해 주셔서 자신감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번 인턴십을 통해 한국의 전문성과 파키스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국제개발과 한국-파키스탄 간 협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번 여름은 단순한 인턴십이 아니라, 앞으로의 진로와 삶의 방향을 생각하게 한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준 PGI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컴퓨터과학 분야에서 더 많은 경험과 역량을 쌓고, 언젠가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려주고 싶습니다.

카라치 기아 자동차에서 6주간 인턴십

Jonh | 컴퓨터과 4학년

저는 기아 자동차에서 6주 동안 인턴십을 하며 Operational Technology(OT), IT/Infrastructure, Business Development 세 부서를 경험했습니다. 대규모 자동차 기업에서 컴퓨터과학과 IT 기술이 실제 산업과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OT 부서에서 자동차 생산 과정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조립, 용접, 도장 등 생산라인의 각 공정과 자동차가 완성되는 과정을 배우고,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장비도 관찰했습니다. 특히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류를 확인하고 백업 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을 보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기술의 안정성과 지속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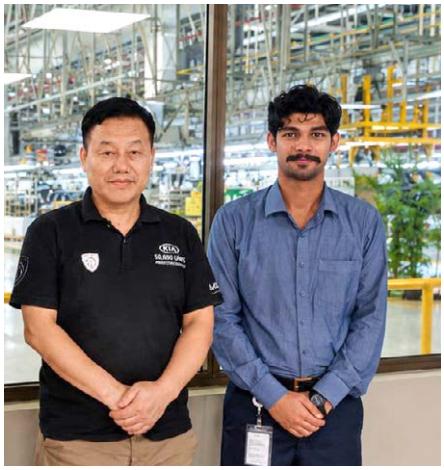
두 번째로 IT/Infrastructure 부서에서는 네트워크와 인터넷 모니터링, IP 관리, 방화벽, 서버, 컴퓨터와 노트북 지원, 사용자 계정 관리 등 기업 IT 인프라의 전반적인 업무를 접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해 일반적인 IT 문의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상하는 과제를 수행하며 AI의 기업 내 활용 가능성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IT 업무는 단순한 프로그래밍뿐 아니라 보안, 인프라 관리, 사용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Business Development 부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1:1 관계를 1:N 관계로 변경하는 과제를 수행하며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또한 원격 IP 접근과 워크스테이션 공유와 관련된 기술도 경험했습니다.

이번 6주간의 인턴십을 통해 생산 시스템, IT 인프라,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보안 및 비즈니스 운영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에게 배우며 책임감과 시간 관리, 조직 내 소통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컴퓨터과학을 실제 산업과 연결해서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주었으며,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하는 데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좋은 이웃 굿네이버스에서의 인턴십

Ali Gohar | 컴퓨터과 3학년



저는 이번 여름 방학 동안 굿네이버에서 인턴쉽을 하며 컴퓨터 학과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파키스탄 전역의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NGO입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데이터 수집과 다양한 업무 문서 처리에 참여했으며, 동료와 함께 기존 홈페이지를 대신할 새로운 정적 웹사이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조직이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는 자신감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인턴십을 통해 사회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Global Youth Program을 통해 외딴 지역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을 알게 되었고, Good Early Child Steps에서는 교사 교육과 ECD 센터를 통해 어린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는 활동을 보았습니다.
또한 SIM Scholarship Program을 통해 교육 기회가 제한된 여성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사업에서 가장 큰 영감을 받은 것은 모두 " 교육"을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교육이 사람과 문화,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특히 저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앞으로 컴퓨터과학 분야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며 기술적인 능력과 소프트 스킬을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직업적 기회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제가 직접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학생 한 명을 교육시키면,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국제대학교(PGI)는 소외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저렴한 학비로 양질의 대학교육을 제공하며,

이들이 미래의 변혁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고아, 장애인, 기독 학생들 그리고 분쟁과 가난으로 교육 기회를 잃어버린

아프가니스탄 학생들에게도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후원은 한 명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3만원 / 5만원 / 10만원

우리은행: 1005-304-837257 사단법인 한서아시아교육연대





사랑으로 세워지는 집

PGI 남학생 기숙사

파키스탄 국제 대학교(PGI)에는
매년 많은 학생들이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 속에는 배움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을 품어줄 공간이 부족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배움으로 자라날
집 같은 기숙사가 절실합니다.

남학생 기숙사는 미래의 리더들이
꿈을 키우고 믿음을 다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손길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공동체의 내일을 밝힙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면 미래의 리더들이
꿈을 펼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설립 기금 계좌

우리은행 1005-304-835768 사단법인한서아시아교육연대

PGI FRIENDS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처럼 먼 길을 함께 갈 PGI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1. 후원 안내

글로벌 캠퍼스 조성 기금 | **우리은행 1005-304-835768** (사)한서아시아 교육 연대

지혜와 지식을 세상에 나누며 겸손히 세상을 섬기는 차세대 리더를 양성할 PGI 글로벌 캠퍼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학교 운영비 후원 | **우리은행 1005-304-835768** (사)한서아시아 교육 연대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학교의 운영과 등록금 없는 대학의 완성되지 않은 꿈을 함께 이루어갈 후원자들을 초청합니다.

밝은 미래 장학 후원 | **우리은행 1005-304-837257** (사)한서아시아 교육 연대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고아, 장애우, 소수민족 등 소외된 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자신의 밝은 미래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창고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 홍수피해, 지진 등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이들을 돕는 구호 활동입니다.

우리은행 1005-304-816764 (사)한서아시아 교육 연대

달러후원 |
Bank Name : Woori Bank
Branch Name : HEAD OFFICE BUSINESS DEPT.
Bank Address : 17, World Cup buk-ro 60-gil, Mapo-gu, Seoul, South Korea
Swift Code : HVBKKRSEXXX
Beneficiary Name : KOREA-WEST ASIA EDUCATION ALLIANCE
Beneficiary Account Number : 1081-201-599520
Beneficiary Telephone Number : 02-2002-3000

2. 교수 및 행정요원 모집

- **경영학과**(BM) |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통계학 전공자
- **IT학과** | IT,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전공자
- **교양학과** | 모든 교양과목 개설 가능(한국어, 영어, 수학, 철학, 역사, 과학, 태권도 etc)
- **행정요원** | 전산소장, 웹디자이너, 영상미디어전문가,간호사, 기숙사 사감, 요리사, 도서관 사서, 대학교 교무, 입학, 학생처 경력자

3. PGI Friends 모집 | PGI 발전에 함께할 기관, 단체의 동역을 기다립니다.

문의처 | helper1318@hanmail.net (한중희 사무총장) 010-3041-5359 **www.pgikorea.com**

| Information |

대학 운영

-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 PGI 2030 개혁·발전위원회를 통해 대학의 미래 청사진이 잘 수립되도록

건축 및 시설

- 4층 교실 증축공사가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 남학생 기숙사와 드리미학교 건축이 잘 시작되도록

교 직 원

- 학문적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좋은 교수들을 보내 주시도록
- 모든 교직원이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역동적으로 사역하도록
- 역량 있는 현지인 교직원들이 잘 세워지도록

Friends

- PGI의 비전에 함께하는 100명의 '밝은 미래' 후원자가 세워지도록
- (사)한-서아시아 교육연대가 잘 성장하도록

